

원희룡 장관, “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방문” 및 “탈선 복구현장 관계자 격려 및 안전한 열차운행 재개 지시”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폴란드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7월 16일 오후 1시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하였다.
 - 현장에서 원 장관은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침수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침수사고 수색작업 현장을 찾아 “참으로 비통한 순간”이라고 말했다.
 - 그리고 원 장관은 실종자 구조와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·경찰·군 관계자 등을 격려하면서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고,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” 하면서
 - “정부도 신속한 구조·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원 장관은 이어 14시 20분, 폭우로 인해 선로 내 토사가 유입되어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된 경부선 맥포터널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, 안전한 운행재개를 위해 철저한 복구와 빈틈없는 사전점검을 지시했다.
- 원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“지속적인 폭우와 토사 유입으로 인해 평소보다 어려운 작업여건에도, 탈선복구에 힘써주고 계신 코레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”며,
 - “신속한 현장복구도 중요하지만 여기계신 작업자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므로,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하게 현장복구를 마무리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□ 이후, 코레일로부터 탈선사고 복구계획, 토사유입 등 전국 호우 피해현황*을 보고받은 원 장관은 “지속된 강우상황에서 비탈면, 터널지역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”이라면서,

* 토사유입(9), 비탈면 유실(3), 노반유실(5), 기타(3) 등 총 20개소 호우 피해
(9개소 복구완료, 9개소는 호우 해소 후 1주일 이내 운행이 가능토록 복구 예정)

○ “현장복구 이후에도 점검을 철저히하고 안정화되기까지 서행운행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연시간 등 안내를 철저히 할 것”을 지시했다.

2023. 7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